

###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사태는 한국 자본 문제 집약판”

[사람과 현장] 불법매각 설비 반출 저지 한국와이퍼분회 현장지킴이 투쟁

일본 자본 텐소·텐소코리아가 지분 100% 자회사 한국와이퍼를 청산하기 위해 고의적자를 기획했다. 텐소자본은 안산의 한국와이퍼 설비와 화성의 텐소코리아 모터사업부 설비를 흥성의 디와이오토로 옮겨 와이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열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불법 조기퇴직 강요, 해고예고 통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자·기획청산 철회, 고용합의 이행·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이 2023년 들어서자마자 폐쇄한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9명의 조합원은 교대로 매일 출근해 사측의 불법매각 기계설비반출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와이퍼분회는 이정식 노동부장관 일정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과 매각 업체로 알려진 인천 남동공단의 디와이오토 본사, 대체 생산지 디와이 자회사 앞에서 주 1회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1월 18일 공장에서 ‘4.16 안산시민연대’가 ‘세월호와 한국와이퍼 노동자 만나는 날, 결, 콘서트’를

1월 18일 안산시민의 따뜻한 공연을 선물 받은 최윤미 분회장은 “추운 날 공장바다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 조합원들을 보면 ‘이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면서 “전기장판에 같이 누워서 이불을 덮는 안산의 동지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다”라고 연대투쟁에 고마움을 전했다.

현재 투쟁 상황에 관해 최윤미 분회장은 “텐소 자본은 한국와이퍼의 와이퍼 설비와 텐소코리아 화성공장의 모터사업부 라인을 옮겨 완성된 와이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한다”라며 “텐소코리아가 비공개 교섭에서 2월 안에 디와이오토가 흥성공장에 와이퍼 생산시스템 공장을 차릴 거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최윤미 분회장은 “2024년까지 생

산계획이 잡혀있다. 사측은 한국와이퍼에서 와이퍼 생산설비를 가져가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계를 빼가려 한다”라면서 “기계를 가져가기 위해 조합원 출입 금지조치했고, 현장을 쇠사슬로 묶고 패넬로 막았다”라고 덧붙였다.

최 분회장은 조합원들이 현장에 진입한 이후 기획청산 불법매각을 막기 위한 설비 반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외투자본 먹튀, 원하청 불공정거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등 자본의 문제가 집약해 나타난 사태라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최 분회장은 “결국 한국와이퍼를 둘러싼 한국 사회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싸우면 한국와이퍼 같은 사태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최 분회장은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은 끝까지 싸워서 전체 노동자의 승리로 만들 것이다”라며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고, 함께 투쟁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 현대삼호중 블라스팅 노동자 물량제 폐지· 4대 보험 쟁취

38일 파업,  
사내하청노동자 채용 합의  
...  
“연대 단체·노동자,  
노조·지부·지회 고맙다”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지난 12월 12일부터 벌인 38일 파업 끝에 4대 보험 가입과 물량제 폐지에 합의했다.

1월 18일 오후 선행도장 세 개 업체 노·사는 시급제 본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공은 사내하청업체 고용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인상으로 블라스팅 노동자의 시급이 오르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급 15,80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에 만근수당 20만 원, 안전수당 3만 원으로 월 350만 원 수준이다.

업체들은 고소·고발 취하하기로 했으며, 노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협의·노력하기로 했다.

장현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블라스팅 현장대표자는 “2000년 초반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에 물량제 고용구조가 자리 잡혔다” 라면서 “조선산업 불황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버려졌고, 노동부에 찾아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소연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며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픔을 겪



었다” 라고 밝혔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지만, 협박과 회유로 번번이 무너졌고, 일부는 해고당하고 일부는 이직했다.

장현진 대표는 “조선산업 호황이 왔지만, 불황이 오면 어떻게 버려질지 알기에 이번 투쟁을 시작했다” 라며 “2022년 12월 12일 작업거부를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38명이 38일 동안 투쟁해 합의했다” 라고 설명했다.

장현진 대표는 “투쟁에 100% 만

족은 없지만, 간절히 원한 물량제 고용구조 폐지와 노동자 인정, 4대 보험 가입 보장 합의에 대한 성취감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장현진 대표는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투쟁을 응원한 많은 연대단체와 모든 분께 고맙다” 라면서 “특히,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장 투쟁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고맙다” 라고 인사했다.